

## World-OKTA 세계대표자 대회 및 수출상담회

# 포천중소기업체 海外진출 활로

## 1천840만불 상담진행 743만불 MOU체결 등 성과

해외한인무역협회는 세계 각국에서 한국 상품이 수출될 수 있도록 첨병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포천 한화콘도와 경복대학 및 반월아트홀에서 해외한인무역협회의 행사인 '제9차 해외한인무역협회(World-OKTA)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사)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회장 천용수)와 산업자원부, KOTRA가 주최하고 경기도와 포천시 등이 후원해 세계 각국에 거주하는 한인무역인·결재인 및 국내 기업인 등 26개국 56개 도시에서 346명이 참석해 회장단 회의와 투자설명회 및 수출상담회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23일 반월아트홀에서 진행된 수출상담회는 19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268명의 한인 무역상들이 자동차부품을 비롯한 의류, 전기전자 등 국내 144개 업체들과 1:1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이날은 1천840만불의 수출상담이 진행되어 12개 업체와 22건에 743만불의 MOU를 체결했다. 이 중에서 이동주조는 일본과 호주, 신공전통한과는 미국과 일본, 천지수조는 독일과 수출상담을 실시하는 등 포천 소재 9개 중소기업과 467만불의 MOU를 체결했다.

이외에도 수출상담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외 한인무역상들은 전시장을 둘러보고 샘플을 구입하는 등 국내 상품에 관심을 보였다.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포천 한화콘도와 경복대학 및 반월아트홀에서 '제9차 해외한인무역협회(World-OKTA)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23일 반월아트홀에서 진행된 수출상담회는 19개국 268명의 한인 무역상들이 국내 144개 업체들과 1:1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이날은 1천840만불의 수출상담이 진행되었고 12개업체와 22건에 743만불의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24일 한화콘도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8개 분과위원회에서는 섬유와 변압기, 가구부품, 타일 등을 생산하는 포천관내 10개 업체가 참석해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제품의 특징과 우수성을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대회에 참석한 해외 한인무역상들은 포천시와 같은 작은 도시에서 차질 없이 옥타대회를 치를 수 있는 점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또 이들은 세계 각국에 구축된 옥타 인프라를 활용해 국내 기업들이 수출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첨병역

할을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수출상담회를 통해 중소기업체들은 원자재수입과 기술제휴, 공동마케팅, 공동연구 등 실질적인 거래와 전략적인 제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간접적인 효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외에 진출해 있는 한인무역상들의 모임인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는 그동안 매년 국내 도시 한곳과 해외 도시 한곳을 순회하며 수출상담회를 갖고 있다.

지난 23일 경복대학에서 열린 개최식에서 천용수 세계한인무역

협회장은 "한국업체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해 왔다"면서 "해외에서 한국 상품과 중소기업들의 홍보대사와 첨병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윤국 포천시장은 "World-OKTA는 한국상품의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한 통상 외교관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첨병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포천지역의 경제인과 기업인들의 해외시장 관료 개척에 큰 일익을 담당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천시가 세계적인 큰 행사를 유치하게 됨으로써 경기북부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체들의 수출경쟁력이 높아지고 세계 한인들에게 경기도 및 포천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무역상담회, 투자설명회 등으로 인해 경기북부지역 상공인들의 한상네트워크를 이용한 수출 촉진이 크게 증가하여 앞으로 한국 중소기업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승환 기자 form65@paran.com

지금 포천은 이렇다 ㉘  
서울-포천 민자고속도로 건설 확정

## 포천지역 교통난 해소 전망

사업공고 2009년 착공 2014년 개통 예정

서울-포천을 잇는 민자고속도로가 빠르면 오는 2014년 개통되어 포천지역과 경기북부지역 교통난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포천시에 의하면 3월28일 기획예산처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위원장 장병원 기획예산처장관)를 개최하고 '서울-포천 고속도로'를 민간투자사업(BTO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최종 확정했다. 또 지난 4월13일 민간사업자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3자 공고를 했다.

제안서가 접수되면 올 연말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를 지정한 후 내년말까지 사업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과 보상 절차를 거쳐 2009년 착공할 계획이다.

서울-포천 고속도로는 경기 구리시 교문동에서 신내IC - 별내IC - 산곡IC - 민락IC - 소흘IC - 가산IC - 포천IC - 신북을 잇는 총연장 45.4km, 양방향 4-6차선으로 건설되며 추정사업비는 9천800여억원에 이른다. BTO(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은 민간이 정부에 제안해 공사를 하고 약 30년 동안 통행료 등으로 투자 사업비를 회수한 후 운영권을 정부에 넘겨주는 방식이다.

서울-포천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국도 43호선과 국도33호선 및 동부간선도로 등 서울과 경기북부지역 교통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도 47호선과 국도 34호선 및 87호선을 이용할 때보다 30분의 시간단축 효과와 더불어 정체에 따른 기름값 절약효과 등

편익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예산처 자료에 의하면 고속도로 통행료는 3천899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포천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2002년 대우건설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해 2005년 건설교통부 대상사업 8순위로 선정되었다가 이번에 사업이 확정됐다.

박윤국 포천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는 그동안 서울-포천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건설교통부 등을 방문해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해 왔다.

포천시 관계자는 "민자고속도로가 건설되면 150만평 신도시 개발과 더불어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서울과 수도권에서 접근이 쉬워지고 포천지역 교통난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고속도로 경유지에 관해 "이번에 발표한 서울-포천간 노선의 경우 기본적인 사항이 반영되어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노선은 내년말까지 시행하는 실제 설계 결과를 봐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승환 기자 form65@paran.com

### 社告

## 불우이웃돕기 창구

본지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자 불우이웃돕기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운동에 참여해 희망하는 분들은 직접 성금을 본지에 접수하거나 아래 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또 매월 정기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동이체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2006년3월29일부터 2007년4월25일까지 '포천신문 불우이웃돕기 창구'에 성금을 기탁하신고마운 분들을 아래와 같이 밝히는

것은 고마움을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금을 불우이웃돕기 통장으로 계좌 입금하신 분들은 아래 문의전화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물품을 접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미리 전화로 연락해 주시면 처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분들의 많은 동참으로 서로 나누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 성금 및 물품접수내역

- 권경화 청정식당 대표
- 유재철
- 이근남
- 강옥자 늘봄꽃화원 대표
- 김종현 포천신문 조사위원회 고문
- 강수동 삼우석재 회장
- 포천남부 새마을금고 직원일동
- 포천남부 새마을금고 직원일동
- 박노현 용아섬유 대표이사
- 신형숙 태봉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60,000원(자동이체)
- 10,000원
- 30,000원
- 20,000원(자동이체)
- 200,000원(자동이체)
- 200,000원(자동이체)
- 1,000,000원
- 쌀 40kg 1포대
- 100,000원
- 20,000원(자동이체)

불우이웃돕기 문의 031-542-1507 계좌: 농협 585-01-015241 (주)한국정보, 포천신문

### ◆노선도



서울-포천 고속도로는 경기 구리시 교문동에서 신내IC - 별내IC - 산곡IC - 민락IC - 소흘IC - 가산IC - 포천IC - 신북을 잇는 총 연장 45.4km, 양방향 4-6차선으로 건설되며 추정사업비는 9천800억에 이른다. BTO(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은 민간이 정부에 제안해 공사를 하고 약 30년 동안 통행료 등으로 투자 사업비를 회수한 후 운영권을 정부에 넘겨주는 방식이다.

Reshaping Asia  
미래의 아시아를 빛자!

# 2007 제 4회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

2007. 4. 28 ~ 5. 27 / 이천·광주·여주 / www.wocef.com

도자도 빛고! 봄나들이도 즐기고!

**온천에서 즐기는 오후의 여유**  
이천 테르메인온천, 광주스파그린랜드, 이천스파몰리스

**문화의 향기를 만끽하는 역사여행**  
세종대왕릉, 목이백물관, 신록사, 명성황후 생가, 분원백자관, 남한산성

**봄빛속의 자연나들이**  
여주 해어림식물원, 용인 한택식물원, 오산 물향기수목원, 광주 울릉식물원



**예매입장권을 구입하시면** 가격은 저렴해지고! 구입은 편해지고!  
당일 복잡한 현장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싼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치차생강고 등의 푸짐한 행운까지!  
예매권을 구입하시는 분에게만 경품추첨을 통하여 푸짐한 경품을 드립니다.

**예매 및 문의** 예매처 농협중앙회 영업점 (제) 세계도자기엑스포 사업팀(이천세계도자센터, 광주조선관악박물관, 여주세계생활도자관) 문의처 (제) 세계도자기엑스포 사업팀(031-645-0530~3)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세계도자비엔날레 기획단(031-645-0507~8)

## 2007 한국의 동충하초展

26일부터 5월17일까지 수목원 산림박물관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박종서)은 4월 26일부터 5월17일까지 산림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2007 한국의 동충하초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한국에 분포하는 동충하초가 100여종에 달하고, 한국이 세계에서 동충하초 분야에서는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곤충에서 발아된 자연 그대로의 동충하초를 가진 여러 수백여종의 표본과 사진을 전시함으로써 한국에 분포하는 신비로운 동충하초의 세계를 감상하고 느끼며 동충하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동충하초(冬蟲夏草, Insect Flower)는 말 그대로 겨울동안에

곤충의 몸 안에 있다가 여름이 되면 풀이 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쉽게 말해 곤충에서 발생하는 버섯이다.

이 동충하초는 예로부터 중국에서 불로장생의 비약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이를 약재로 성분 분석한 결과 상당한 정도의 항암, 항세균과 항진균 효과가 알려진 중요한 소재이다. 이 동충하초는 전세계적으로 300여종이 알려져 있으며, 국내에는 100종이 가까운 다양한 종류가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 되어있어 한국에서 가장 많이 자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수목원은 2007 한국의 동충하초전을 개최해 방문객들에게 다

양한 동충하초 사진과 표본을 눈으로 직접 체험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얼마나 다양하고 신기한 동충하초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정보 제공과 현재까지 산업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를 알리고자 한다.

이번에 전시하는 사진과 표본들은 23년 동안 국내에서 강원대학교 성재모 교수와 연구원들에 의해 채집된 동충하초 은행에 보관중인 표본들과 사진 그리고 실험실에서 인공으로 재배된 동충하초와 제품들이 전시된다.

전시회는 4월 26일부터 5월 17일까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개최된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 내촌면 한마음 걷기대회 열려

500여명 참석 생활체육 통한 주민화합 단결



포천시 내촌면 체육회는 생활체육 행사를 통하여 주민이 화합하고 단결할 수 있도록 2007년도 내촌면 한마음 걷기대회를 4월 22일 각급 기관단체장 및 주민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운국 포천시장은 "앞으로 주민들이 접전 후로 마음껏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내촌 교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중이며 금년 11월에 완공하여 내촌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마음 걷기대회는 실록이 푸르른 비포장도로 5.4km를 약 1시간

동안 남녀노소가 즐겁게 답소를 나누며 진행되었으며, 또한 걷기 행사 후 체육회에서 준비한 경품 100점을 추첨을 통하여 나누어 주었고 보물찾기, 스포츠댄스 시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하여 주민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행사로 진행됐다.

내촌면 한마음 걷기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5km를 걸으면서 이웃들과 그동안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았다"면서 "보물찾기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내촌면민들이 화합하고 단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 베트남 연수일정 확정

포천신문 운영위원회 제64차 정기회의

포천신문 운영위원회(위원장 윤이용)는 4월20일 제6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4월27일부터 5월1일까지 4박5일간 일정을 확정하고 포천신문 독자배가운동에 다같이 동참하기로 의결했다.

20여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정기회의에서 윤이용 위원장은 "여러가지로 바쁜 가운데 포천신문 운영위원으로서 정기회의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포천신문의 사랑을 받고 있는 포천신문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말했다.

최호열 본지 발행인은 "품질양면으로 포천신문 발전에 도움을 주시는 운영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이제 포천신문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독자 확보가 당면과제로 운영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4월27일부터 5월1일까지 진행되는 베트남 해외연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으며 베트남 호치민 현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운영위원회 배성호 고문과의 미팅을 통해 현지 투자사업에 대한 설명도 청취할 계획이다.

한편, 본지 독자배가운동의 취지는 그동안 지역의 중심매체로서 다양한 정보제공은 물론 여론형성의 장이 된 포천신문을 보다 많은 시민들이 구독할 수 있도록 하여 포천시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이상일의 탐조(探鳥) 이야기 ⑫ 황조롱이 [kestrel]

### 사냥의 달인 천연기념물 제323-8호

봄 내음 가득한 포천시 제방을 따라 탐조를 시작한지 10여분도 지나지 않아, 파란 하늘에서 까만 점 하나가 시야에 들어왔다. 마치 엄마가 잣나무의 시력 발달을 위해 천장에 매달아 놓은 모빌처럼 앞 날개를 퍼덕이며 정지비행(hovering)을 하고있는 황조롱이더군요.

먹이를 사냥하기 전에 공중에서 정지한 상태로 퍼서 머리를 좌우로 돌려가며 땅위의 먹잇감을 탐색하는 호버링 동작은 맹금류의 위용보다는 장난꾸러기 귀염둥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을 쳐다보며 앞쪽 날개 깃과 꼬리 깃을 움직여 정지상태로 공중에 떠있는 동작을 하며 사냥감이 사정권에 들어오면 번개처럼 땅으로 내려와 예리한 양 발톱으로 먹잇감을 움켜쥐고 자신의 동지로 날아가 포란 중인 암컷에게 가져다주는 자상한 가정의 모습을 보니 자연의 지혜로움과 경이로움이 느껴집니다.

사냥의 달인으로 알려진 황조롱이는 천연기념물 제323-8호로 보호를 받고있는 희귀종으로 포천시 번에서도 자주 관찰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제 사무실 앞 하천에서 호버링을 하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망원경으로 사무실에 앉아서 이런 모습을 관찰하는 것도 또 다른 탐조의 묘미가 아닐까 합니다.

황조롱이는 외딴 시골의 산골이나 하천주변에 서식하는 텃새이지만 최근에는 도시의 고층건물에서도 서식하는 장면이 자주 목격되기도 하는데, 이는 황조롱이가 결코 도심환경을 좋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들은 들쥐나 작은새, 곤충 등을 먹잇감으로 하는데, 최근 영농환경이 기계화되면서 눈에 나곡량이 감소하여 예전과 같이 들쥐 등의 개체수가 줄어들게 되어 자연스럽게 도시나 농가주변에서 집쥐(?)를 먹이로 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도시주변에서 자주 목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미도 도시에 가장 잘 적응한 맹금류가 바로 황조롱이가 아닌 가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도심 생활 속에 살아가기에는 커다란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지요.

대형건물이나 아파트의 유리



006. 04. 20 포천시 포천천에서 촬영

벽을 하늘로 착각하고 날아들다 유리벽을 들이받고 추락하여 날개를 다치거나 뇌진탕으로 죽는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도시지역에서 다쳐 치료를 받는 야생 조류는 한 해에 천 2백여 마리이며 이 중 5백여 마리는 회복돼 자연으로 돌아가지만 나머지는 죽거나 영원히 날지 못한 채 우리에 갇혀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최근 비정상적으로 개체수가 늘어난 까치들의 협공이 잦아지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신세로 전락한 초라한 맹금류의 모습도 보여주는 슬프고 가여운 존재입니다.

황조롱이의 눈 밑에는 눈물자국 같은 세로 줄무늬가 있어서 더더욱 슬프게 보입니다.

포천시 근처에서 등지를 틀고

번식중인 황조롱이부부는 머지않아 태어날 어린 새끼들을 기다리며 열심히 포란중입니다.

이들이 무사히 태어나 번식에 성공한다면 포천천의 생태계가 살아있다는 징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맹금류의 날카로움을 상징하는 황조롱이의 웅장스런 모습이 우리 주변에서 자주 목격되어 천연기념물로 보호받는 신세가 아닌 그저 평범한 주변의 새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포천신문조사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일  
 017-705-0994



세계로 열린 행운의 도시 - 포천 People of fortune



# 2007 포천 YMCA배 야구리그



■주최 : 포천 YMCA ■주관 : 포천시 야구협회 ■장소 : 영북중학교 ■후원 : 미즈노제일스포츠(02-2272-0540) 한솔광고(주) 비전아트21

“야구단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 포천 나이스야구단
- ▶ 포천 만다린덕스야구단
- ▶ 포천 YMCA야구단
- ▶ 동두천 이담야구단
- ▶ 동두천 청합야구단
- ▶ 철원 철루미야구단
- ▶ 가평 야사야구단
- ▶ 남양주 돌핀스야구단



## 포천시야구협회

경기도 포천시 신음동 143-4 유한APT 상가 104동 102호  
 Tel. 535-0867 Fax. 536-0868 H.P. 011-242-0869  
 E-mail : csh9110002@naver.com

- ▶ 포천 YMCA 창립준비위원장 송영섭
- ▶ 포천 YMCA 리틀야구단 단장 장승호
- ▶ 고문 장명재 ▶ 부단장 선우담 ▶ 감독 이석현
- ▶ 코치 배병두 황원규 고지우
- ▶ 선수 안희택 강현세 이경렬 성기범 황성우 장풍도  
 이지운 박유민 이윤기 김승현 양태호 안유택